

[종합·해설]

지방선거 D-2



김강식 후보 <열린우리당> 김용우 후보 <한나라당> 오현섭 후보 <민주당> 심정우 후보 <무소속>

엑스포 유치 적합인물 이슈

여수시장

여수시장 선거는 전남지역에서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남지역 시장 선거전에서 유일하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고 정동영 의장이 지원유세를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 시장 선거전의 최대 이슈는 여수 엑스포 유치 문제. 이는 후보가 여수 엑스포 유치에 적합한지를 놓고 유권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여수시장 선거 판도는 김충석 현 민주당 시장을 경선에서 누르고 올라온 오현섭 후보가 우세를 보였으나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열린우리당 김강식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오현섭 민주당 후보는 전라남도 행정, 정

오현섭 후보는 "여수엑스포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증된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질체에 빠져있는 여수에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속의 여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식 열린우리당 후보는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쌓아왔던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 후보만이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김강식 후보는 돌산 공원에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대규모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공약도 내놓고 있다. 초반의 열세를 딛고 추격에 성공, 이미 판세를 역전시켰다는 김강식 후보는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강식 오현섭 "민주당 바람 효과 없어 초반열세 딛고 역전 성공" "탄탄한 조직·부동층 흡수 갈수록 격차 더욱 벌어져"

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쌓은 경험과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여수엑스포 유치는 물론 여수를 지중해식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 회사 및 콜센터 유치 등으로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선거 판세와 관련 오현섭 후보 측은 초반의 경선 접합이 해소됐는데 바다 민선에도 민주당 바람이 불어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이며 낙승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탄탄한 조직에 김충석 현 시장과 김충조 전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현섭 후보측은 부동층의 표심도 점차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김강식 후보측은 여수시 유권자들이 그동안 무소속 후보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만큼 민주당 바람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여수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막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주승용, 김성근 의원이 자신들의 선거처럼 유세현장을 매일같이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김강식 후보의 지지를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김 후보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 후보는 "여수 발전에 인생을 걸었다"며 "특히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진종근 후보 <열린우리당> 박병중 후보 <민주당>

우리·민주 박빙...부동표 변수

고흥군수

막판에 접어들어 고흥군수 선거전은 한치 앞도 예견하기 못할 만큼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초반만해도 지난 4년동안 고흥 군정을 이끌었던 열린우리당 진종근 후보가 앞서 나갔으나 중반 이후 민주당 박병중 후보가 지지 호소하고 있다. 진종근 열린우리당 고흥군수 후보는 "우주센터 공장이 80% 가량 진행돼 내년 12월이면 인공위성이 발사될 예정이고, 항공센

터와 우주체험관,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도 건립 중에 있다"며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진 후보는 특히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을 토대로 관련 기업은 물론 우주항공대를 유치하고 테마관광단지 조성, 미래형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광양권 통합과 관련, 진 후보는 한성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진 후보는 2010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교육을 살리는 한편, 유망기업과 문화시설을 확충, '떠나는 고흥에서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중 후보가 따라 붙고 있는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진종근 박병중 "지역현안 지속 추진 적임 대체 기울어 6대4 승리" "박상천·신중식씨 지원 최소 10%이상 앞설 것"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인 복지 대책과 관련 박 후보는 노인정 건립 등 광범위한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와 신중식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이미 판세를 역전시켰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박 후보는 "군민들의 표심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표심은 결국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최소한 10%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판세가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거 당일 부동층의 행태와 투표율이 고흥군수 선거전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중해 후보 <민주당> 김중표 후보 <한미준> 하승안 후보 <무소속>

- 격전지를 가다 -

무소속 현군수 VS 민주당 바람

보성군수

무소속 하승안 군수의 낙심이 예상됐던 보성군수 선거전은 민주당 정중해 후보의 막판 추격으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성군수 선거전은 하승안 군수의 3선 탈선 여부와 함께 신중식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의 보이지 않는 맹주 싸움도 관심거리다. 우선 보성군수 선거전의 이슈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보성-별교간의 해묵은 지역감정 해소 등이 꼽히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하승안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역 현안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안정된 균형'이 필요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3선 연임에 대한 군민들의 거부감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난 8년동안 최

였다. 이에 맞서 기획예산처 부이사관과 전라남도 경제협력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중해 후보는 30여년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 '보성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군민들은 검증된 예산 전문가를 선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후보는 녹차산업에 치중된 현 보성군의 경제 구조를 친환경농업 및 특용작물 재배와 해양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으로 확대시켜 보성군을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정중해 하승안 "군민은 변화·개혁 선택 노인포 다지기 주력" "8년간 최우수군 '우뚱'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

우수 군으로 평가받은 점을 군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일본을 제치고 보성군을 세계 최고의 녹차 산지로 육성시키겠다는 하 후보는 녹차 산업 이외에도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보성과 별교간의 지역감정과 관련, 별교를 역사와, 관광, 환경산업이 맞닿는 복합단지로 육성해 제2의 중흥기를 도래시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선거 판세와 관련 하승안 후보는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3선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그동안 보성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차지하는 비율이 26.5%를 기록한 보성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만큼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는 한편 보성군을 정부의 고령화 사회 정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별교 개발과 발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별교를 복합형 관광문화단지로 발전시키려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미 선거 판세를 역전시킨 것은 물론 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 정 후보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보성군 구석 구석을 다니며 민심을 얻을 것"이라며 "보성군민은 이제 변화와 개혁을 선택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낙영교육시학원) featuring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logo and text about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and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or Eduview (에듀뷰넷) featuring 'Eduview' logo and text about 'Eduview' and 'Eduview'.

Advertisement for Hyeonjae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featuring 'Hyeonjae Vocational College' logo and text about 'Hyeonjae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for Gwangu Public Administration Exam (공무원 이론반) featuring 'Gwangu Public Administration Exam' logo and text about 'Gwangu Public Administration Exam'.

Advertisement for Gwangju Education Institute (광주교육시학원) featuring 'Gwangju Education Institute' logo and text about 'Gwangju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or Hyeonjae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featuring 'Hyeonjae Vocational College' logo and text about 'Hyeonjae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경남대학교) featuring 'Gyeongnam University' logo and text about 'Gyeongnam University'.